

# 한·미 FTA와 국내 섬유산업

박 훈 ·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 1. 머리말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5년 미국, EU 등의 수입쿼터 완전 폐지 이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들에 의한 시장잠식이 가속화되면서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경쟁력 열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 섬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국의 관세 폐지에 따른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단가 하락은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에 신노동법 발효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위안화 절상까지 겹치면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대미 수출증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기술) 제휴, FDI 유입 등 한·미간 산업협력이 확대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출증대효과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는 앞으로 업계와 정부의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미간 수출입 현황 및 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실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섬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미간 수출입 현황 및 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

### 2.1. 한·미간 수출구조의 특징

우리나라와 미국 섬유산업은 보완적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용 의류용 섬유 위주의 수출구조인 반면,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위주의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물 중심의 수출구조인 반면, 미국은 의류, 산업용 제품을 포함한 섬유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 편직물, 의류는 양국 모두 수출 주력품목인데,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의 경우 한·미 양국의 세부 주력 수출품목이 다르다. 편직물의 경우 미국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북미 및 중미·카리브해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들은 대미 의류 수출시 특혜(비관세/무쿼터)를 받기 위해 미국산 편직물을 사용하여 대미 수출용 니트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의류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중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특히, 미국 의류는 역내(캐나다, 멕시코, CBI) 무역 및 선진국과의 산업내 무역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CBI 지역이 2008년 현재 63.5%에 달하고, EU가 1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미 양국의 수출 주력분야에 대한 품목별 수출구조를 비교해 보면 화섬장섬유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합섬 비텍스처트사와 폴리에스터 강력사가 주력 수출품목인 반면, 미국은 합섬 텍스처트사, 나일론 강력사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다. 합섬 비텍스처트사의 경우는 미국도 주력 수출품목인데, 미국 제품은 극세사인 반면, 우리나라 제품은 범용제품이 대부분이다. 화섬원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주력 수출품목인 반면 미국은 재생·반합성 섬유 토우가 주력 수출품목이다.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경우는 미국도 주력 수출품목인데, 미국 제품은 산업용 고가 제품인 반면, 우리나라 제품은 의류용 중저가 제품이 대부분이다. 화섬장섬유직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텍스처트 폴리에스터 직물이, 미국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터 직물과 고강력직물이 주력 수출품목이다. 나일론직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로 의류용 제품인 반면, 미국은 고기능성·산업용 직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 2.2.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현황

#### 2.2.1. 한·미간 분업관계

우리나라와 미국 섬유산업은 상호 보완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편직제(니트) 의류, 편직물, 화학섬유,

**Table 1. 한·미간 주요 분야별 수출구조 비교(단위 : %)**

	한 국				미 국			
	1995	2000	2005	2008	1995	2000	2005	2008
화섬원료	5.9	4.7	6.7	7.7	8.2	4.6	5.9	7.8
섬유사	7.6	8.5	10.4	10.3	9.3	9.8	11.2	14.9
면사	1.3	0.8	0.8	0.8	1.2	1.8	3.4	5.8
화섬장섬유사	4.5	6.4	8.2	8.2	6.5	6.4	6.0	6.5
직물	57.3	56.6	58.8	61.4	26.2	30.8	41.2	36.0
견직물	1.5	0.8	1.0	0.9	0.1	0.1	0.2	0.1
면직물	2.6	3.7	4.8	3.6	5.5	7.3	7.1	3.9
화섬장섬유직물	30.1	20.1	14.1	14.2	4.1	6.2	3.8	2.9
화섬단섬유직물	6.0	3.2	2.7	2.1	1.9	2.2	3.1	2.6
편직물	6.9	13.9	19.7	24.9	3.0	4.0	10.1	8.8
도포·적층한 직물	4.5	7.5	6.4	6.3	2.0	2.3	3.7	3.8
타이어코드	0.8	1.1	2.1	2.6	1.0	0.8	0.6	0.6
부직포	1.4	1.6	2.9	3.2	3.8	3.5	7.2	8.4
섬유제품	29.4	30.2	24.1	20.6	56.2	54.8	41.7	41.3
의류	25.0	25.1	17.1	11.9	41.5	40.7	24.7	21.0
기타섬유제품	4.4	5.1	7.0	8.7	14.7	14.1	17.0	20.3
섬유산업전체	100.0 (178)	100.0 (181)	100.0 (137)	100.0 (131)	100.0 (144)	100.0 (200)	100.0 (178)	100.0 (176)

자료) 한국통계는 한국무역통계, 미국통계는 미국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 주) 1) 한·미간 비교를 위해 HS 코드(5000~6310) 기준으로 작성
- 2) ( )안은 수출금액(억 달러)임.

면직물, 화섬장섬유직물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화학섬유, 직물제 의류, 부직포, 산업용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화학섬유는 대미 수출입 비중이 모두 높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화섬장섬유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폴리에스터 강력사를 주로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거의 생산하지 않는 아세테이트사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고, 화섬원료의 경우 폴리에스터 단섬유를 수출하는 반면, 아세테이트 섬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 2.2.2. 대미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00년대 들어 의류, 화섬직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08년 현재 15억 달러로 2000~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3%나 감소하였다. 특히,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폐지된 직후인 2004~2008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14.7%의 매우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MFA 폐지, 즉 미국의 쿼터 폐지로 쿼터 보유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들에서 미국시장 잠식이 크게 이루어진데 기인한다.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한 분야는 의류와 화섬장섬유직물로, 2000~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18.5% 및 10.7%나 감소하였다. 의류의 경우 미국의 쿼터 폐지 이후 저임을 바탕으로 한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의한 시장잠식이 가속화되었고, 특히 미국이 고관세(25~32%)를 적용하고 있는 화섬의류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화섬장섬유직물의 경우 중국이 외자 유치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대미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였다.

반면, 화섬원료, 면사, 편직물은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우선 화섬원료는 미국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면사의 경우 2002년 미국 쿼터 폐지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편직물도 최근 중국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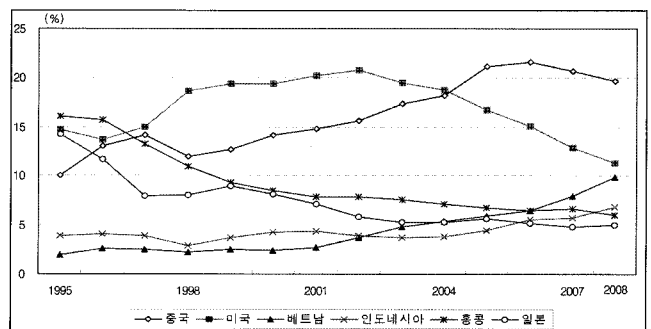


Figure 1. 우리나라 섬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주요국 비중 추이.

**Table 2.** 대미 주요 분야별 수출입 현황(단위 : 백만 달러, %)

	대미 수출				대미 수입			
	2000	2005	2008	증가율	2000	2005	2008	증가율
화섬원료	88	164	169	8.6	27	26	28	8.6
섬유사	122	147	123	0.1	66	58	62	-0.7
면사	2	23	26	35.7	1	0	0	-
화섬장섬유사	116	115	90	-3.2	64	56	60	-0.9
직물	808	758	635	-3.0	72	54	49	-4.7
견직물	58	37	26	-9.4	1	0	0	-10.2
면직물	104	101	102	-0.3	4	3	1	-14.6
화섬장섬유직물	242	143	98	-10.7	15	4	3	-17.6
편직물	209	285	267	3.1	8	12	11	4.1
기타직물	161	170	132	-2.5	40	34	33	-2.3
의류	2,277	1,046	442	-18.5	20	45	64	15.4
편직제	1,020	690	377	-11.7	11	17	21	8.8
직물제	1,208	354	64	-30.8	9	27	43	21.0
기타섬유제품	300	212	136	-9.4	34	54	58	7.1
섬유의류	3,596	2,327	1,506	-10.3	219	237	262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주) 1) 본 통계는 MTI 코드 기준으로 작성, 2) 증가율은 2000~2008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이고, 천 달러 기준으로 작성

**Table 3.** 주요국의 우리나라 섬유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단위 :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중국	10.7	18.3	22.7	27.7	37.0	41.9	40.2	13.0
이탈리아	1.6	2.7	2.7	3.0	3.6	3.9	3.5	5.3
일본	2.9	3.1	2.9	3.1	3.2	3.3	3.5	-2.0
베트남	0.4	0.6	0.9	1.1	1.5	1.9	2.9	22.9
인도네시아	1.1	1.4	1.4	1.5	1.9	2.0	2.4	5.2
미국	1.2	1.3	1.5	1.7	1.7	1.8	2.0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증가율은 2000~08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임

**Table 4.** 주요국들의 미국 섬유수입시장점유율 비교(단위 : %)

	1995	2000	2005	2008	연평균증가율 (2000~08)
한국	5.2	4.4	2.4	1.5	-9.8
대만	5.5	3.7	1.9	1.4	-8.9
멕시코	7.5	13.7	8.6	5.8	-7.4
캐나다	3.9	4.8	3.6	2.3	-6.1
중국	12.6	10.7	24.2	32.9	18.6

자료) 미국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주) 연평균증가율은 미국통계 기준 주요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증가율임.

시장 잠식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미국의 편직제 의류 수요 증가에 따른 편직물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 섬유산업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 섬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은 2008년 현재 11.3%로 중국(19.7%)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 2.2.3. 대미 수입 현황

대미 섬유 수입은 아직도 적은 규모에 머물고 있지만 의류, 기타 섬유제품,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은 2008년 현재 2.6억 달러로 2000~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의류 수입의 경우 청바지를 중심으로 한 면바지의 높은 수입증가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5.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로 한 기타 섬유제품과 아세테이트 섬유 및 아라미드 등 고강력 섬유를 중심으로 한 화섬원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섬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2000년 1.2%에서 2005년 1.7%로 높아진데 이어 2008년 현재 2.0%로 더욱 상승하며 우리나라의 6번째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 2.3.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경쟁력 분석

미국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쟁력을 미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을 통해 비교해 보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빠른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우선 중국은 그 동안 쿼터 규제 등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WTO 가입 및 미국의 MFA 폐지 이후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점유율이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2000~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6%의 높은 대미 수출증가에 힘입어 미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이 같

**Table 5. 한·중·대만의 미국시장점유율 비교(단위 : %)**

	한 국		중 국		대 만	
	2000	2008	2000	2008	2000	2008
화섬원료	19.9	15.9	2.3	19.3	17.1	6.6
섬유사	5.5	5.6	1.3	9.4	2.0	3.0
면사	0.5	11.3	1.5	4.1	1.0	0.1
화섬장섬유사	9.0	6.3	1.1	10.7	2.5	3.6
화섬방직사	0.6	1.4	1.7	9.1	1.0	2.0
직물	11.6	9.3	6.9	22.6	7.5	5.8
견직물	11.6	9.7	19.5	28.7	0.0	0.0
모직물	4.1	2.0	1.0	11.6	0.0	0.0
면직물	4.2	11.1	10.7	25.1	5.6	2.9
화섬장섬유직물	23.9	10.7	3.2	14.8	3.5	6.0
화섬단섬유직물	4.4	2.1	12.0	31.2	5.6	5.1
편직물	23.8	22.9	0.7	19.8	14.9	8.8
적층·표면처리직물	16.3	9.4	2.1	14.6	4.1	6.8
타이어코드직물	27.9	22.5	0.0	12.6	0.0	4.3
부직포	0.2	2.5	0.0	11.7	0.4	2.8
의류	3.8	0.7	10.5	32.8	3.3	0.9
기타 섬유제품	1.6	0.7	19.8	41.9	3.7	1.1
섬유산업 전체	4.4 (4,134)	1.5 (2,646)	10.7 (8,016)	32.9 (22,443)	3.7 (2,776)	1.4 (1,771)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주) 1) HS 코드 기준으로 작성

2) 시장점유율은 수입시장점유율 기준

3) ( )안은 미국의 각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백만 달러)

은 기간에 10.7%에서 32.9%로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은 개도국이 쿼터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무쿼터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미국의 MFA 폐지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신흥 개도국들과의 경쟁 심화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미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은 80년대 말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로 의류를 중심으로 하락세로 반전된 데 이어 2002년부터 섬유소재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동안 다량의 쿼터물량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대만은 미국의 쿼터 폐지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후발 개도국들에게 미국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 2.3.1. 미국시장에서 한·중·대만간 주요 품목별 시장점유율 비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시장에서 중국 및 대만제품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우선 화섬원료의 경우 한·중·대만 모두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주력 수출품목이어서 경쟁관계가 가장 심하다.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난 미국 화섬원료 시장에서 중국이 저가품시장을 거의 잠식하였고, 우리나라는 중고가시장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반면, 대만은 중국 및 한국과의 경쟁 열세로 대미 수출이 증가되지 못하였다. 미국 화섬원료수입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높게 증가한데 영향을 받아 2004년 25.3%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8년 현재 15.9%를 기록하였고 대만은 2008년 현재 6.6%로 2000년보다 10.5% 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은 2008년 현재 19.3%로 2000년보다 8배 이상 상승하였다.

화섬장섬유직물은 중국과 대만이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의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설비 노후화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범용 설비에 의존하면서 경쟁력이 중국은 물론이고 대만보다도 약화되었다. 특히, 대만은 지속적인 설비 개채 및 증설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생산품목인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터직물 생산을 확대하면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 화섬장섬유직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23.9%에서

2008년 10.7%로 절반 이하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에 4.6배 및 대만도 2.5% 포인트 상승하였다.

미국 화섬장섬유사 수입시장 점유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범용품인 합성장섬유사에 대한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확대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2000년 9.0%에서 2008년 6.3%로 하락한 반면,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같은 기간에 각각 1.1% 및 2.5%에서 10.7% 및 3.6%로 상승하였다. 국내 화섬업체는 폴리에스터 강력사, 탄성사 및 합성장섬유 복합사 위주로 수출구조를 전환하면서 동 품목의 미국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미국 의류수입시장 점유율의 경우 우리나라와 대만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미국시장을 거의 상실한 반면, 중국은 2000년대에 평균 18.4%의 높은 대미 수출에 힘입어 2008년 현재 32.8%에 달하고 있다.

편직물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국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2년 미국의 쿼터 폐지 이후 중국에 의한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8년 현재 22.9%로 2002년보다 5.9% 포인트 낮아진 반면, 중국은 2002년 3.7%에서 2008년 19.8%로 5.8배 상승하였다.

면직물은 중국, 대만과의 경쟁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

**Table 6. 섬유산업의 관세양허 현황(단위 : 개, 백만 달러, %)**

구분		즉시 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전체
미국	품목수	1,387(86.8)	0(0.0)	149(9.3)	62(3.9)	1,598(100.0)
	수입액	1,654(61.2)	0(0.0)	504(18.6)	548(20.2)	2,706(100.0)
한국	품목수	1,265(97.6)	7(0.5)	24(1.9)	0(0.0)	1,296(100.0)
	수입액	170(72.0)	32(13.4)	34(14.6)	0(0.0)	236(100.0)

주 1) 품목수 및 수입액은 2003~05년 기간 동안의 평균 금액임.  
 2)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단계별 비중임.

목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과의 경쟁 없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림으로서 미국 수입시장점유율이 2000년 4.2%에서 2008년 11.1%로 세배 가까이 크게 상승하며 중국(25.1%), 이탈리아(14.7%)에 이어 3위의 시장점유국으로 부상하였다.

면사는 2002년 미국의 쿼터 폐지 이후 높은 수출증가율을 지속하면서 미국 수입시장점유율이 2002년 0.7%에서 2008년 11.3%로 상승하여, 인도(13.6%), 멕시코(12.2%)에 이어 3위의 시장점유국으로 부상하였다.

### 3.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기대효과

#### 3.1. 한·미 FTA 타결안

한·미 양국은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단계별로 섬유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합의하였다. 2003~05년 3년 평균 기준으로 미국은 대한민국 섬유 수입액 중 61.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5년 이내에 18.6%, 10년 이내에 20.2%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미국 섬유 수입액 중 72.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년 이내에 13.4%, 5년 이내에 14.6%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산지 방식에 있어서는 원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리넨, 여성 재킷, 남성 셔츠와 양국 모두 원사 공급 부족 품목인 비스코스레이온, 아크릴, 라이오셀은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역내에 원료 공급이 부족하여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 충족이 어려운 의류와 직물에 대해 연간 m(대미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

까지 원산지 예외쿼터(Tariff Preference Levels : TPL)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품에 대한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기업 정보 제공에 합의하는 등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시장개방에 대한 상징적 안전장치로 셰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관세특혜 적용에 따른 수입증가로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혜관세 인하 정지 및 MFN 세율내에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하며, 2년간 발동(2년 연장 가능), 동일품목에 대한 재발동은 금지하기로 하였다.

### 3.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

#### 3.2.1. 무역장벽 완화 효과

##### 3.2.1.1. 관세폐지효과

한·미 FTA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 섬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체결로 수출경쟁력이 회복되면서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이와 함께 생산 증가는 물론 채산성 개선도 예상된다.

섬유 관세율이 높은 미국이 FTA 체결 즉시 대한민국 수입액의 61.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함으로써 관세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섬유산업보다 관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32%의 고관세 품목(HS 8단위 84개)과 특별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109개)이 전체 수입 품목의 12.1%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의류 내수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홍콩, 캐나다 제품은 물론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수출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동시에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화섬제품

**Table 7. 한·미간 주요 분야별 관세율(가중평균 관세율) 비교(단위 : %)**

		화섬 원료	섬유사			직물						의류	전체
			천연 섬유	화섬 단섬유	화섬 장섬유	모	면	견	화섬 단섬유	화섬 장섬유	편직물		
2005	한국	6.9	6.9	8.0	8.0	13.0	10.0	13.0	10.0	8.0	10.0	12.9	9.4
	미국	4.3	9.0	9.3	8.5	24.6	7.6	0.2	12.3	14.5	11.4	17.9	13.1
2008	한국	6.9	6.9	8.0	8.0	13.0	10.0	13.0	10.0	8.0	10.0	12.9	9.4
	미국	4.3	8.7	8.8	7.2	22.5	7.0	0.2	12.7	13.8	11.1	16.0	10.6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 미국무역위원회, 관세율표

주 1) 본 통계는 HS(5000~6399, 천연섬유원료 제외) 코드 기준으로 작성

2) 2008년 미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하락한 것은 화섬의류, 비텍스워드 폴리에스터 직물 등 고관세 품목들의 큰 폭 수출 감소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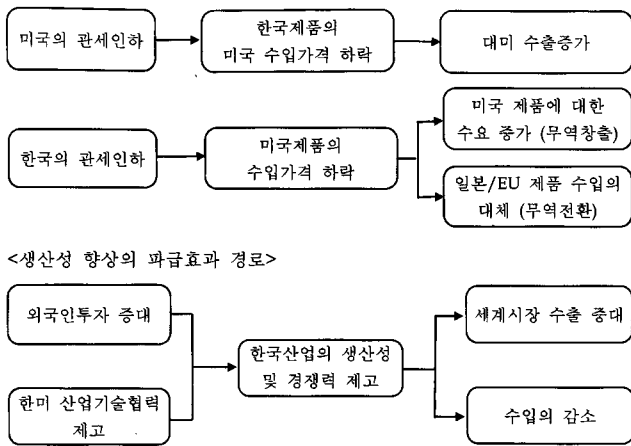


Figure 2. 한·미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경로.

■ 대미 수출증대 예상 분야

- 의류의 경우 합섬 의류가 상대적으로 수출증대효과가 높을 전망
  - 합섬 셔츠(32.0%), 합섬스웨터(31.8%), 합섬바지(25.3%), 여성용 합섬자켓(27.3%), 합섬블라우스(29.8%), 남성용 합섬코트(28.0%), 수영복(24.7%) 등 스포츠의류
- 원산지 예외품목(여성 재킷, 남성 셔츠 등), 가격경쟁력 제고품목(고급 모직물, 혼방직물, 염색한 비텍스처트 폴리에스터 직물, 여성 면바지 등)도 유망품목
- 한편, 화섬의류 수출확대에 힘입어 화학섬유, 화섬직물의 간접수출(내수증가)이 기대

(25~32%) 중심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수출증대효과를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지난해 신노동법 발효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까지 겹치면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대미 수출 확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섬제품 중심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원사 기준 원산지 적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원사기준 원산지 적용이 가능한 화섬제품(화섬원료/사 - 화섬직물 - 화섬의류 - 기타화섬제품)이 65%에 달하고 있다. 반면, 원사기준 원산지 적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제품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대미 수출액의 5%에 해당하는 남성셔츠, 여성 재킷, 마직물도 실질변형 기준 원산지 적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국내 섬유업체들이 생산구조를 미국의 관세가 폐지되는 품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증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2.1.2.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는 단납이 중요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한 후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상품의 대미 수출 시 지불하고 있는 통관 물품취급수수료를 없애므로써 기업들의 수출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확보하였다. 미국은 현재 2,0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 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으로 섬유분야의 반덤핑 조치들이 조기에 철폐되는 등 한·미간 통상마찰이 완화되면서 대미 수출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덤핑/상계조치 및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구제위원회에서의 조사 전 사전협의 및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FTA 미체결국보다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전략적 기대효과

우리 섬유업계는 미국의 관세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만, 홍콩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고가 제품 위주의 생산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은 중국, 인도 및 멕시코 등과 경쟁하고, 중고가 제품은 대만, 홍콩, 캐나다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중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커서 관세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고가 제품의 경우 대만, 홍콩, 캐나다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폐지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핵심기술을 보유한 미국 업체와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생산업체와의 전략적 기술 제휴 및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부분의 외자 유입 등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섬유소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고기능성 섬유소재 등)이거나, 고가 제품(의류, 산업용 섬유제품 등)이다. 따라서 대미 수입관세 폐지로 수입단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미미하며, 대미 섬유소재 수입단가 하락으로 미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간 기술협력 등으로 통해 고부가가치·차별

화 제품 위주의 생산체제가 구축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자금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중저가 범용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을 통해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1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시장은 산업용 섬유 수요가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생산체제 구축으로 아시아 산업용 섬유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내 섬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앞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확대는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차별화제품 위주의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시장에서 중고가 제품의 경우 대만, 홍콩, 캐나다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폐지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저가 제품은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커서 관세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화섬업계는 고강력사, 고신축사, 극세사 및 복합사,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그리고 직물업계는 다중 복합직물, 고기능성 직물, 텍스타일 디자인 직물 위주로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의류업계는 ODM(자체디자인개발생산), OBM(자체브랜드제품생산) 위주로 수출구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산업용 섬유업체들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산업용 섬유 수입을 줄일 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임가공 생산업체들이 자립화를 통해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 등을 활용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 세분화 전략 등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 소비계층,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버계층 및 히스패닉계 소비계층, 신세대 소비계층 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미 FTA로 대미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미국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전시회에 미국 바이어들의 유치 확대를 지원하며 국내 무역의 날 때 국내 우수 수출인 뿐만 아니라 미국 우수 바이어에게도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와 관련 단체는 미국시장 monitoring을 통해 미국의 수입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여 website 등을 통해 중소기업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에 대비해 미국의 관세 폐지 품목에 대해 경쟁국 및 미국산 제품들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우려됨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monitoring 실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수출업체들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료·원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증명이 필요함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스트림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의 표준화를 통해 업체들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의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 원사와 제직 업체간, 제직과 염색가공 업체간, 이업종간 협력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미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 • 박 훈

현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연구위원